

어린이들을 위한 성경  
제공

양치기 소년  
다윗



저자: Edward Hughes  
삽화: Lazarus  
각색: Ruth Klassen  
번역: Helen Hwang  
제작: Bible for Children  
[www.M1914.org](http://www.M1914.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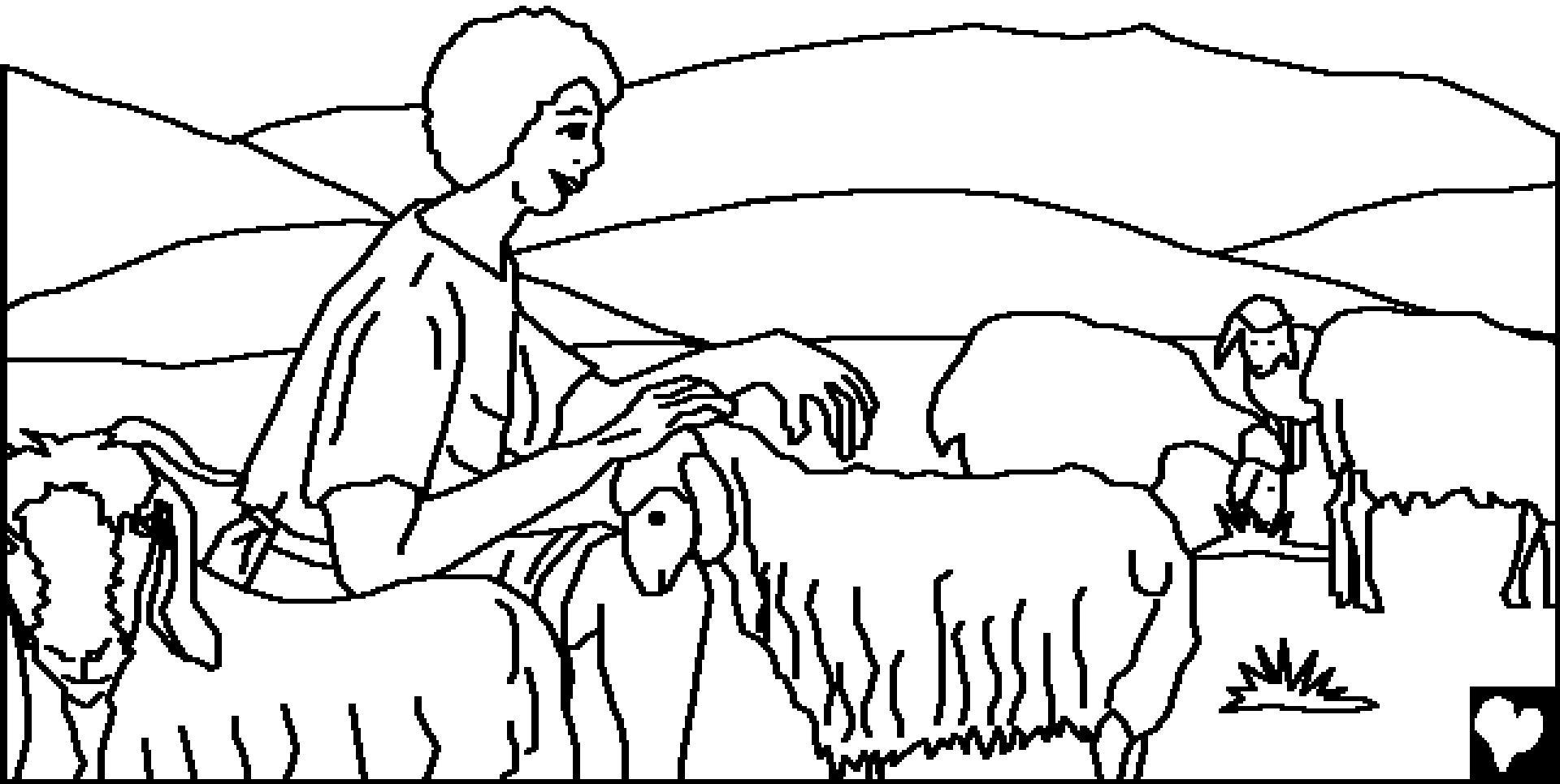
BFC  
PO Box 3  
Winnipeg, MB R3C 2G1  
Canada

©2012 Bible for Children, Inc.

인가: 당신은 이 이야기를 판매하지 않는 한 복사 또는 인쇄할 권리가 있다.



오래 전 이스라엘의 사울왕 시대에 다윗이라는 소년이 일곱형들과 함께 양떼를 돌보고 있었어요. 그는 막내였지만 아주 건강하고 용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했어요. 그는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 살고 있었지요.



한번은 사자가 어린 양을 잡아먹으려고 양떼를 공격했어요. 이 때 어린 다윗은 오히려 사자를 공격해서 어린양을 구해 내고 사자의 턱을 잡아 죽였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은 사울왕이 계속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일을 해서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은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마음 아파할 것이냐?” 하며 사무엘을 꾸짖으셨어요. “너는 이새에게 가거라. 내가 그의 아들 중 하나를 왕으로 선택했기 때문이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였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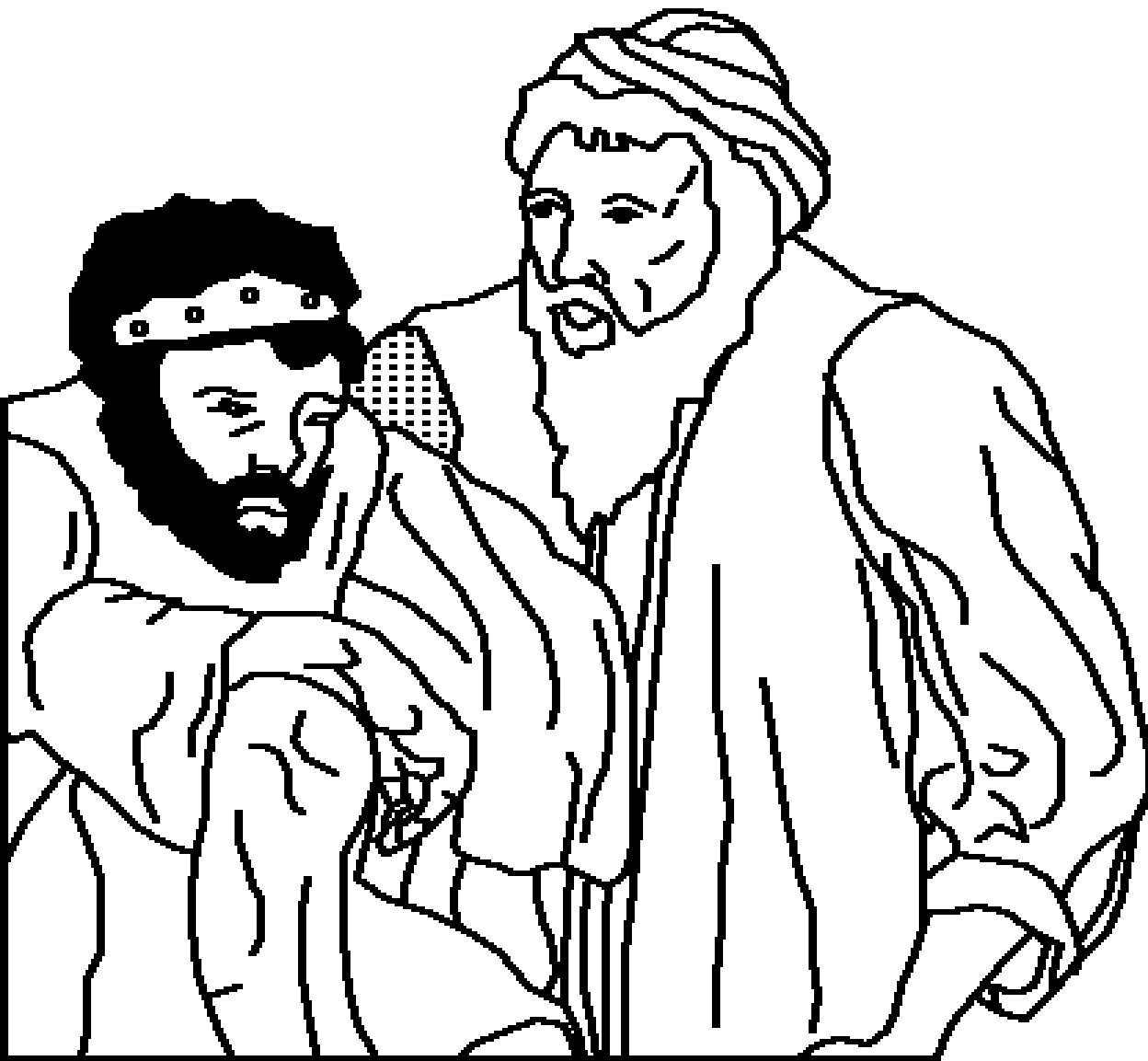
사무엘이 새로운 왕을 찾으러 간다는 사실이 사울왕에게 알려지면 그는 죽음을 면치 못함을 알았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였지요.





사무엘이 도착했을 때, 이새는 그의 일곱 아들들을 차례로 사무엘 앞에 불러 들였어요. 하지만 사무엘은 “주님이 이들 중 아무도 뽑지 않으셨소.”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밖에서 양치고 있던 막내 아들 다윗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가 바로 내가 택한 자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편 궁전에서는  
주님의 영이 떠나  
버린 사울이 고통  
에 시달리고 있었  
어요. 사울의 신하  
들은 좋은 음악이  
그에게 도움이 되  
지 않을까 생각했  
어요. 신하 중 한명  
이 하프를 아주 잘  
연주하는 어린 소  
년을 알고 있었지  
요. 이 어린소년이  
누구일지 짐작이  
가나요? 네, 바로  
다윗이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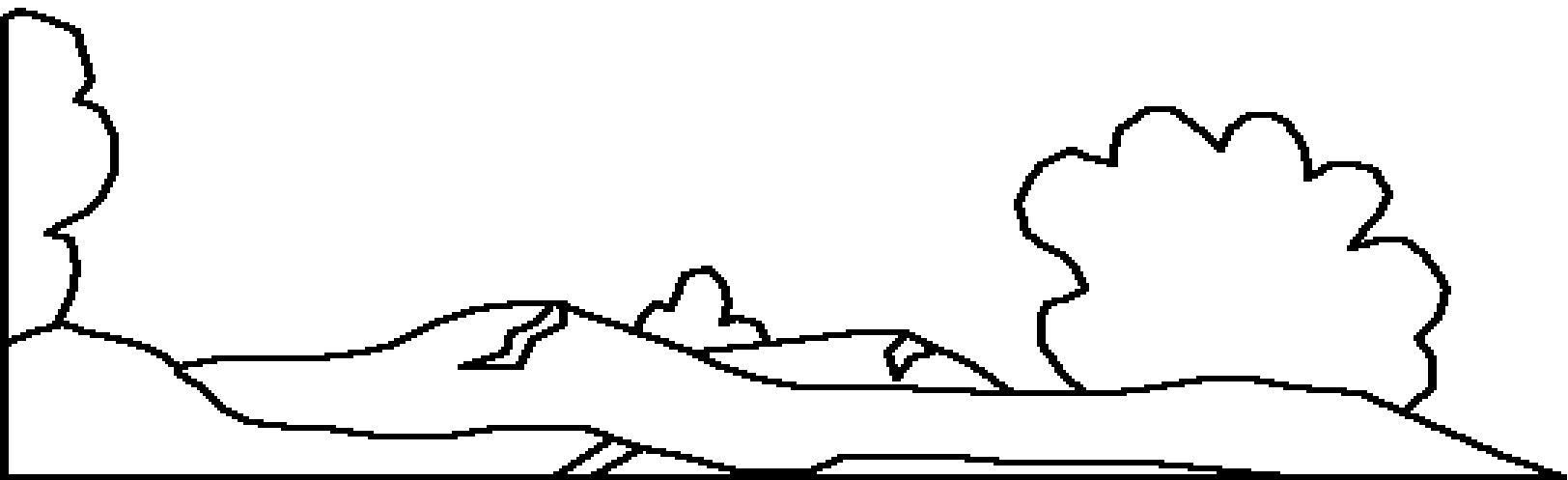




다윗의 연주가 사울에게 위로를 주고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이새에게 다윗이 자신을  
섬기도록 왕궁에 지낼 것을 요청하였지  
요. 사울이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두려  
움에 떨 때마다 다윗은 그를 위해 하프  
를 연주해 줬어요.



다윗이 집으로 돌아간 후에,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과 큰 전쟁을 치르게 되었어요. 다윗의 형들도 사울의 군대에서 싸우고 있었지요. 이새는 그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음식을 전해 주려고 다윗을 전쟁터로 보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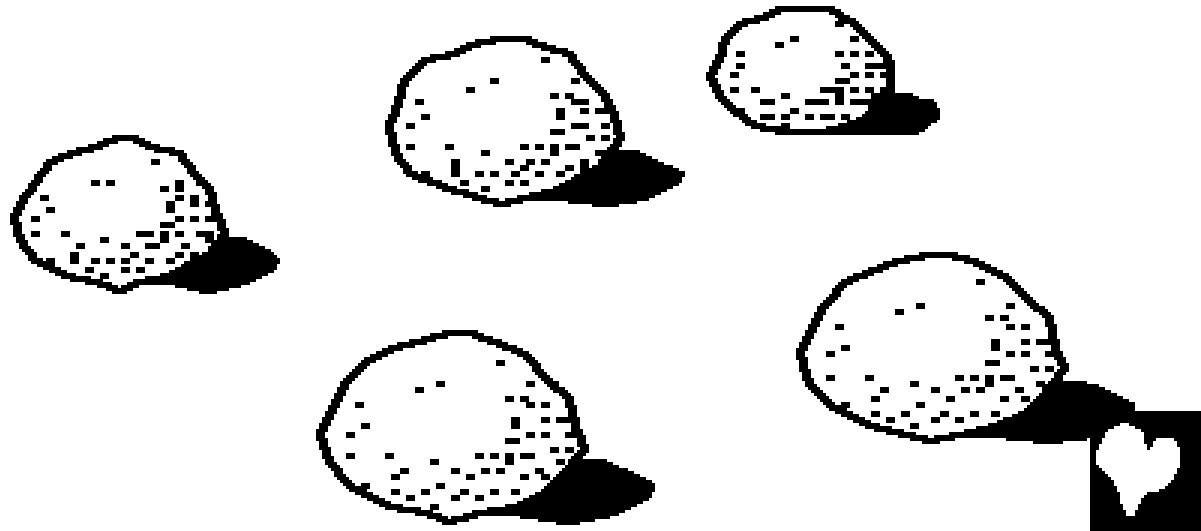
엄청난 블레셋 거인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사들을 조롱하며 겁을 주고 있었어요.



골리앗은 이렇게 소리쳤어요. “너희 중에 나와 맞설 자를 보내라. 만약 그가 나를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를 죽이면 너희들이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겨야 할 것이다.” 이스라엘 병사들은 이 거인 앞에 무서워 벌벌 떨며 도망가 버리고 말았지요.



이것을 본 다윗은 사울에게 “이 거인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제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라고 말하었어요. 그러자 사울은 다윗에게 갑옷을 입혀주고 창검을 주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이것들이 거추장스러워 내려놓고 자신의 물매와 조약돌 다섯개를 시냇가에서 주워 들었어요.



골리앗은 심지어 갑옷도 입지 않고 나타난 어린 다윗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어요. “내가 네 몸을 새와 짐승의 먹이가 되게 해주마!” 하며 골리앗은 으름장을 놓았지요. 그러자 다윗은 이렇게 대답하였어요.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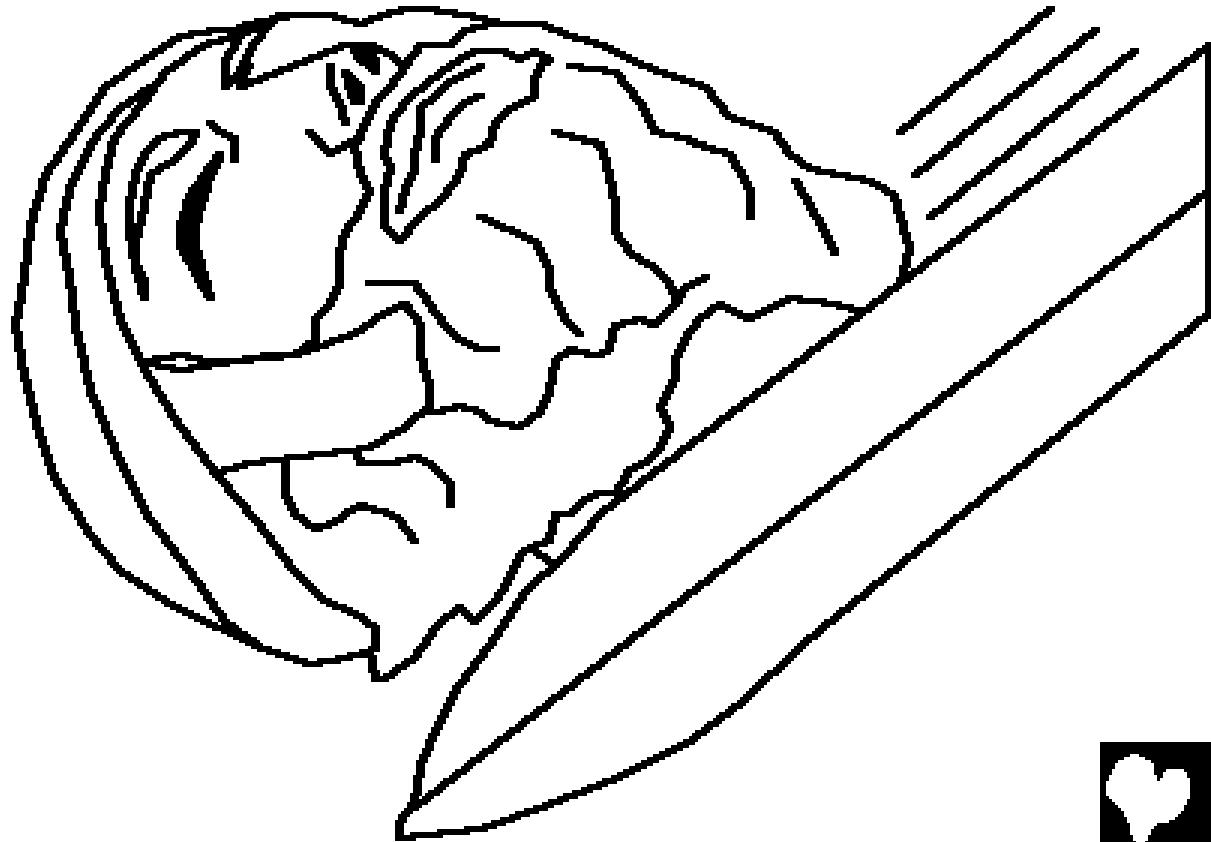
여기에 왔다.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이니 오늘 주님이 너를 내 손에 맡길 것이다.”



그리고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면서 물매로 돌하나를 힘껏 던졌어요. 이 돌이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를 맞혔고 골리앗은 쓰러지고 말았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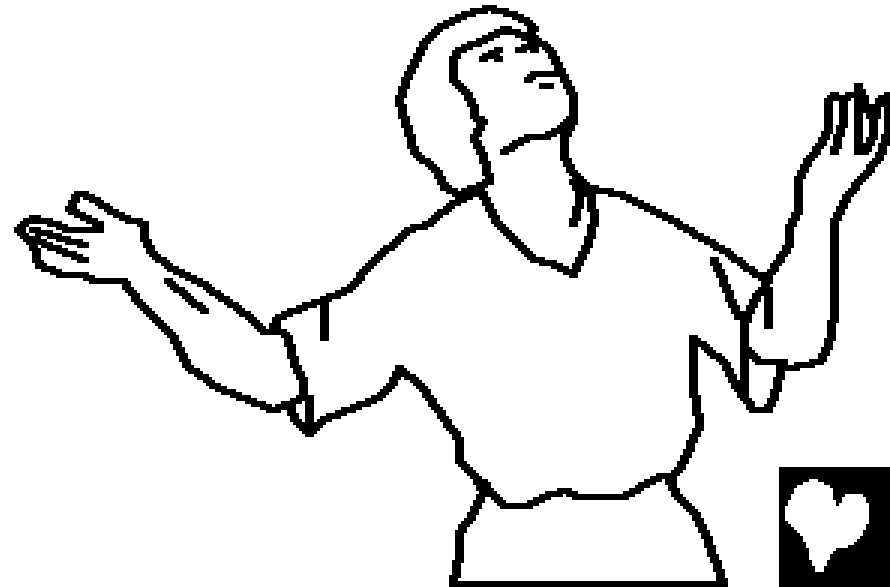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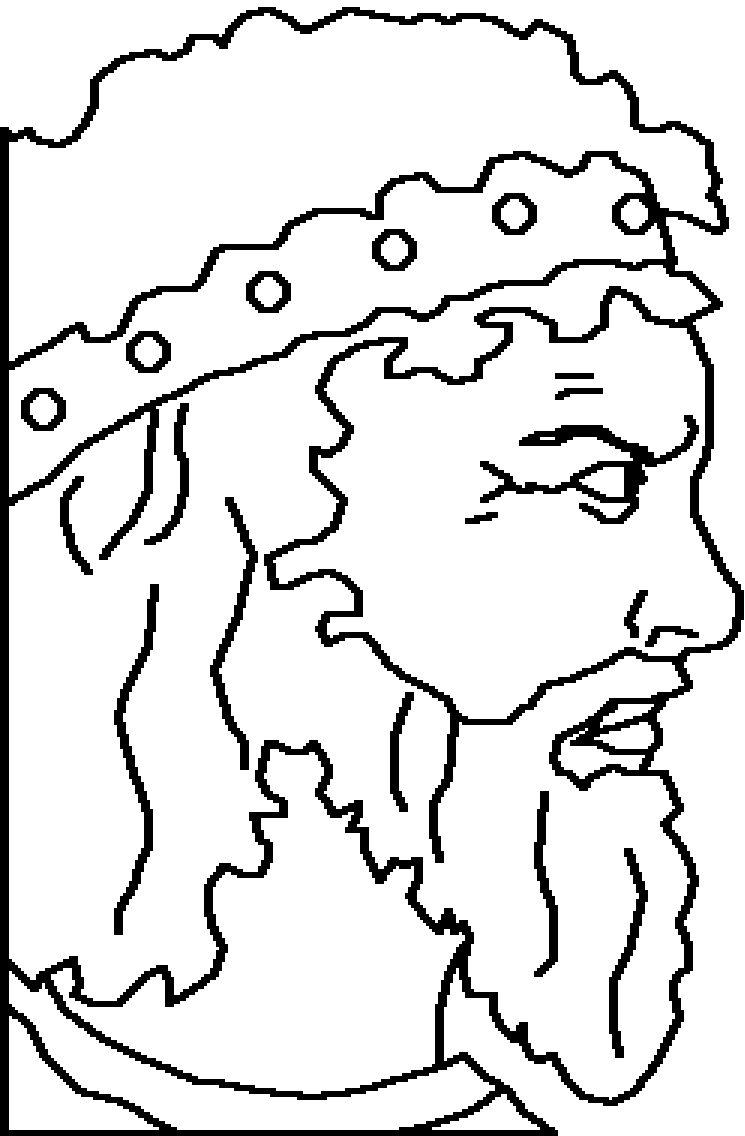


다윗은 재빨리 골리앗의 장검을 뽑아  
그의 목을 베어 버렸지요. 이 광경을  
본 블레셋사람들은 줄행랑을 쳤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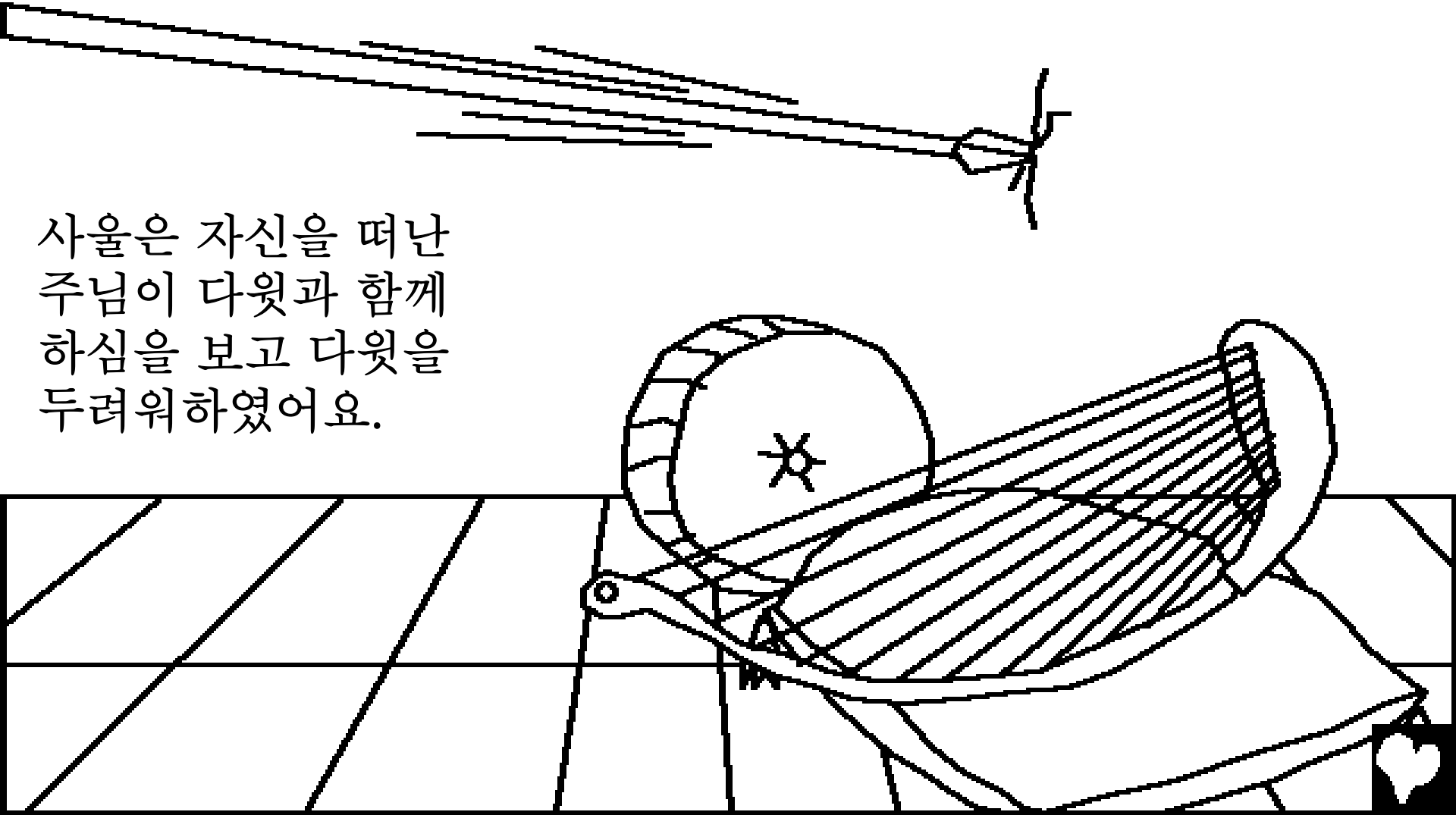


사울왕은 승리를 가져온 다윗이 하프로 자신을 위로했던 그 다윗임을 알지 못한 채 그를 군대의 책임자로 세웠어요. 그 후 백성들이 다윗의 승리를 인정하게 되자 사울은 이를 시기했어요. “그는 이제 나의 왕국까지도 원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품기 시작하자 사울은 다윗을 죽일 기회만 찾고 있었지요.



다시 사울왕이 나쁜 영의 지배를 받아 괴로워하자 다윗은 그를  
안정시키기 위해 이전처럼 연주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연주를 하고  
있던 다윗에게 사울은 세번씩이나 창을 던져 죽이려고 했어요.  
그 때마다 다윗은 몸을 피하여 다치지 않았지요.

사울은 자신을 떠난  
주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을 보고 다윗을  
두려워하였습니다.



한편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은 다윗을 친형제처럼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걸 알고 다윗이 도망갈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인 미갈도 자신의 아버지가 다윗을 다음날 아침에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날밤 미갈은 다윗의 침대에는 다른 형상을 두어 속이고 그를 창문으로 내려 보내 탈출시켰습니다. 사울의 병사들은 아침에 다윗을 찾으러 왔지만, 그는 이미 도망치고 없었습니다.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사울로부터 멀리 떠나가야만 했지요. 그렇지만 그는 떠나기 전에 요나단과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로 영원한 친구일 것이라는 언약을 맺었어요. 슬프게도 이들은 작별을 고해야만 했지요. 이제 다윗은 사울의 병사들이 자신을 찾을 수 없는 안전한 곳을 찾아 떠나게 되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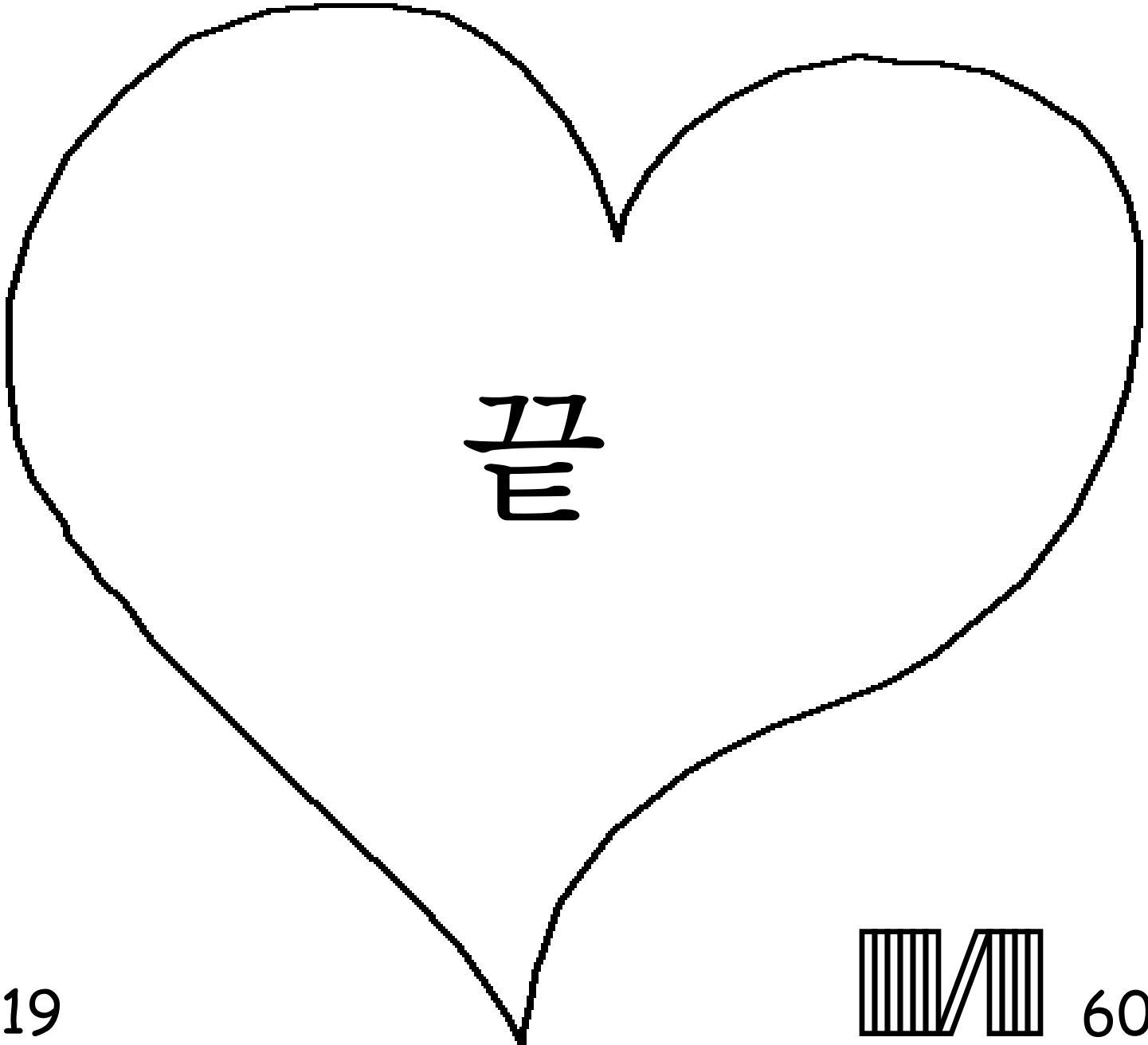
양치기 소년 다윗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6-20장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비취어  
깨닫게 하나이다.” 시편 119:130





19

60



성경 이야기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 주고  
싶어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에 대해 말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라고 불리는 나쁜 짓들을 해 온것을 알고  
계십니다. 죄에 대한 처벌은 죽음이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당신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죄값을 치뤄 주셨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천국으로 가셨지요. 예수님을 믿고 싶으면  
당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 분께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당장 오셔서 동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과 영원히 함께해 주신답니다.

당신이 이 진실을 믿으신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세요.  
사랑하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인 것과 인간으로 오셔서 제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제 삶을  
주관하시고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아멘

성경을 읽고 하나님과 매일 대화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